

비뇨기과 전문의 정지영의
술직, 대담한 性

66세의 박동영(가명)씨는 평소 꾸준한 운동과 등산으로 건강 면에서는 어떤 누구보다 자신하며 살아온 사업가였다. 체질상 술도 잘 받지 않아 흡연을 데 없는 건강인이었으나 단지 흡연이 문제였다. 20대 초반부터 배운 흡연은 벌써 40년 경력이 되었고 늘상 '금연만 하면 성공이다'라며 젊을 때부터 여러 차례 금연을 시도했지만,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지는 그 어떤 것보다 힘들었다.

무통성 혈뇨 뎀 의심음

그러던 어느 날, 박씨는 친구들과 2박3일 여정의 등산을 다녀왔고 귀가하여 소변을 보는 도중 붉은색의 오줌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외 별다른 증상이 없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겠지'

방광암 주범이 '흡연'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박씨, 그러나 그 이후 혈뇨는 2-3차례 반복되었고 이상하게 여긴 박씨가 마침내 내원했다.

방광암은 무통성 혈뇨를 주 증상으로 하는 노인성 악성종양으로, 대개 50-60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아무런 증상 없이 소변에 피만 섞여서 나오므로 간과하기 쉽고, 그 이후 혈뇨가 나오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진단이 늦춰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노령 인구에서 혈뇨가 비치면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무심코 흘려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비단 방광암이 아니더라도 신요로계에 생긴 종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 해 둔

철저한 검사가 필연적이다.

박씨의 증상에 대해 여러 검사로 혈뇨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고 결정적으로 방광내시경을 통해 방광벽에 생긴 해초처럼 자라나는 방광암을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종물이 하나밖에 되지 않고 크기도 작아 내시경적 절제 수술로 비교적 간단히 제거되었다.

박씨의 경우는 진행상 초기 방광암이었고 크기도 작아 예후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진행정도가 심하고 크기가 크거나 그 숫자가 많은 방광암 환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방광을 적출해야 하고 인조방광을 만들어 방광의 소변저장기능을 대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 아무리 방광을 잘 만들더라도 원래의 방광기능을 따라갈 수 없음을 말할 나위 없으므로, 암의 진행정도가 심하지 않은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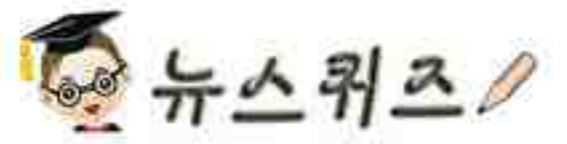
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방광암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2~3배 더 많이 발생하며 여러 원인인자가 암 발생에 기여한다. 그 중 흡연은 방광암의 주된 원인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약 4배정도 방광암발생이 증가되므로 금연은 방광암예방에 필수적이다. 덧붙여 물을 평소에 잘 마시지 않는 것도 방광암의 위험인자로 평가된다. 하역튼 사래와 같이 고령에서 무통성 혈뇨가 나타나면 방광암의 가능성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들러 검사 받아 볼 것을 권한다.

여자보다 남자가 2~3배 더 많아

방광암이 아니더라도 소변에 피가 비치는 혈뇨는 남녀노소 어느 나이에서라도 발생 가능하고 그 원인되는 질병 또한 다양하므로, 혈뇨가 단 한번이라도 발생했다면 쉽게 여기지 말고 (처우에 혈뇨가 사라지더라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태미필 피부 비뇨기과 원장)



64. 미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한국인 1호 타자인 이 선수가 고향 구단인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KIA는 최근 이 선수와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 5천만원, 옵션 4억원 등 최대 15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빅쇼이'로 불리며 메이저리그 통산 363경기에 출장해 홈런 40개 등 타율 0.240(915타수 220안타) 120타점, 130득점을 기록한 이 선수는 누구 타요?

- ① 최희섭 ② 박찬호 ③ 이병규 ④ 이승엽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드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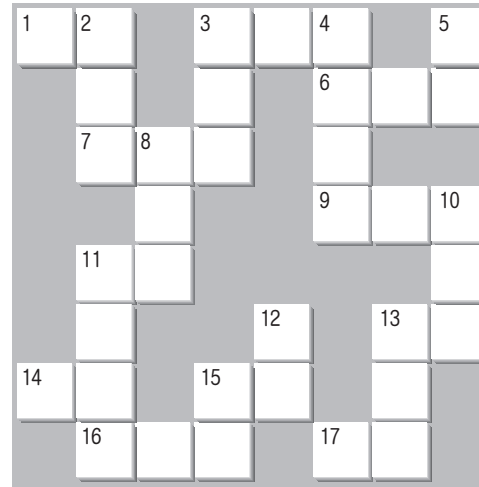
→ 가로풀이

- 1. 어머니 쪽의 친척. 신하들은 임금의 ~들이 정처에 참여하자 이들을 몰아내려고 했다. 3. 전통 혼례식을 치르는 장소. 6. 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 7. 군대나 경찰이 갖추어야 할 무기 등의 장비를 갖추지 않음. 적군들은 ~ 상태인 민간인들을 잡았다. 9. 한 주(週)가 시작되는 월요일마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느끼거나 힘이 없음을 느끼는 증상. 11.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위치나 지위. 천하장사 ~ 결정전. ~를 매기다. 13. 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함. 또는 그 덮개 구조물. 하천 ~ 공사. 14. 여러 사람 가운데서 적당한 사람을 가려 뽑음. 총리 ~. 새 내각의 ~에 착수하다. 15. 군사 작전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관리, 보급, 지원하는 일. 또는 그런 병과(兵科). ~ 부대.

16. 도서관에서 책이나 문서 등을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곳. 17. 두 가닥의 뼈로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고 붙어서 한 가닥으로 통처럼 되어 있는 아래 팔뚝을 이르는 말. 또는 힘이나 대가 센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세로풀이

- 2. 조선 고종 8년(1871)에 흥선 대원군이 척양(斥洋)을 결의하며 서울과 지방 각처에 세운 비석. '침범하는 양(洋夷)과 화친(和親)할 수 없다'는 뜻을 새겨 넣었다. 3. 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쓴 편지나 글. 그에게 파티에 참석해달라는 ~을 보냈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4.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 ~을 벗 삼아 술을 마시다. 5. 외국의 돈. 외국의 통화로 표시된 수표나 유가 증권 등도 포함한다. 8. 일부터 꾸미거나 뜻을 더하지 아니함. 또는 통계의 표본 추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동등한 확률로 발생하게 함. ~로 다섯 명을 선정하다. 10. 병의 입구를 막는 것. ~병뚜껑. 11.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 ~을 위한 묵념. 12. 오래전부터 한 직위나 직장 등에 머물러 있는 사람. ~선임/선참. ~신참. 13. 발목 부근에 안팎으로 동글게 나온 뼈.



<함께 풀어봅시다 250회 정답>

15.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거처하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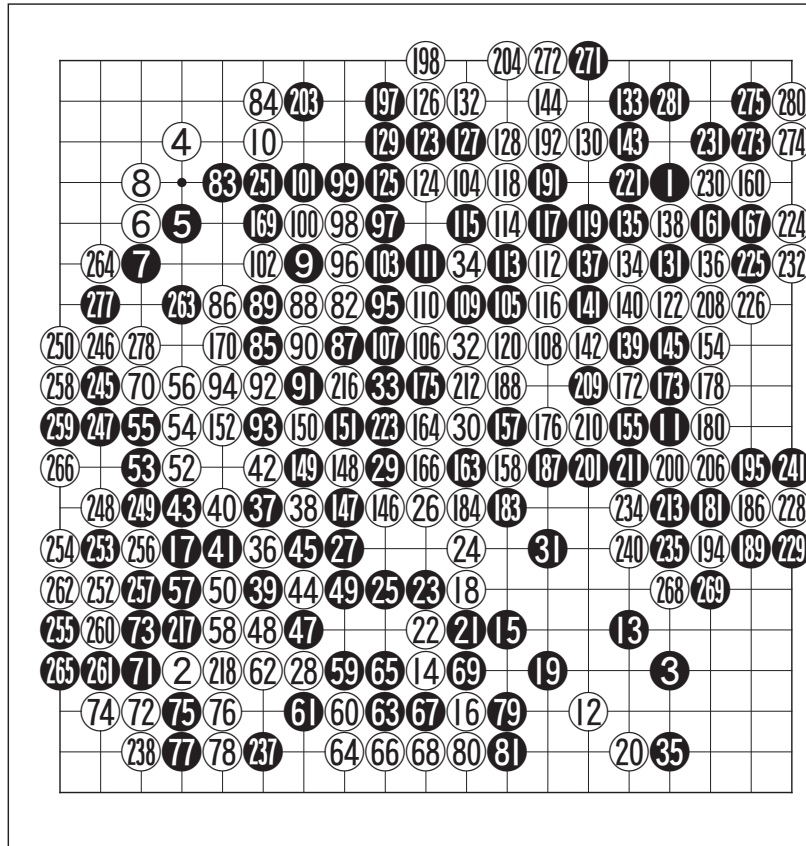
▲지남주 정답자

윤서정·강진근 강진음 김도연·광주시 서구 풍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초단들의 돌풍 총보(1~282)
KTm 왕위전 16강 白 윤찬희 초단 黑 목진석 9단

최근 바둑계에는 갖 간단한 초단들이 거센 돌풍을 일으키며 맹활약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상훈 초단은 입단하자마자 전승가도를 달리며 다승과 승률1위를 달리며 비록 윤준상에게 막혀 도전권 쟁취는 놓쳤으나 박영훈 9단을 물리치고 왕위전 도전자 결정전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영구 6단, 목진석 9단 등 내로라하는 강자들을 연파하고 8강에 진출하여 바둑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바둑은 윤찬희 초단의 싸움바둑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대접전으로 일관된 치열한 한판승부였다. 전투는 목진석 9단의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윤찬희 초단에게 '힘에서 밀려버렸다'고 할 정도로 윤찬희의 전투력은 막강했다. 초반 전투에서 포도송이를 감수하고 46으로 이은 것이라든지 82로 갈라 흑 대마를 끝까지 물고늘어져 목진석 9단이 힘을 쓸 여지를 없애간 것 등은 윤찬희가 강자들을 연파하고 8강에 오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8강전에서 윤준상 국수에게 막혀 4강진출은 좌절되었으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되는 한 판이었다. 백 282수 끝. 백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고근태, 천원전 8강전 진출

고근태 5단이 최근 스카이바둑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2기 박카스배 천원전 16강전에서 백홍석 5단을 182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지난 10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근태 5단은 한·중 천원전에서 중국 랭킹 1위 구리 9단을 꺾는 등 천원전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한편, SK가스배 우승, 비씨카드배 준우승에 이어 한국바둑리그 주장을 맡는 등 각종 기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백홍석 5단은 고근태 5단에 맞붙어 달미를 잡혀 탈락했다. 대회 우승상금은 2천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4일(음 3월 28일 戊申)

- 子 36년생 이웃의 좋은 소식이 들리니 기쁨을 함께하라. 48년생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소식은 온다. 60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72년생 평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니 금성정화다. 84년생 시기 상조이니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17, 29
丑 37년생 현실을 떠나 마음껏 상상해라. 49년생 불연이던 운이도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움직여라. 61년생 산 넘어 산이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오히려 득이 되리라. 73년생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나 무력할 것이다. 85년생 구슬수가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7, 40
寅 38년생 자신은 편하지만 이웃은 괴롭다. 50년생 부부의 정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생긴다. 62년생 부부사이의 불화는 서로의 맞으로 생각 하고 화해하라. 74년생 가족간의 어려움이 생기니 큰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09, 36
卯 39년생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지만 해결은 미루어진다. 51년생 다가오는 일을 먼저 예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라. 63년생 갑자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웃에 감사하라. 75년생 화려한 의복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 21, 25
辰 40년생 건강검진을 받아 보고 작은 병을 고치라. 52년생 행동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라. 64년생 병은 작을 때 고치야 큰 병을 잡고 행운도 따르리라. 76년생 변화보다는 집중을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05, 26
巳 41년생 마음을 편하지만 상황은 어려워 질수도 있다. 53년생 급히 서둘러야 할 일이 생긴다. 65년생 구슬수는 항상 상존하니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77년생 돈은 구하나 쓸 구멍이 곧바로 생긴다. 행운의 숫자: 08, 37
午 42년생 자신의 명예보다는 부하의 앞날을 생각하라. 54년생 상사로 인해 고통이 생길 수 있으니 상하를 살피라. 66년생 옛 정은 소중한 것이니 우정을 쌓아라. 78년생 갑작스런 소리에 대비하여 돈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14, 38
未 43년생 은근이 지진이나 새로운 것보다는 지난날을 점검하라. 55년생 안과계통의 검진을 받아 보라. 67년생 상대방의 인격도 나의 자존심만큼 지켜주라. 79년생 실수를 안 하려거든 서두르지 마라. 행운의 숫자: 12, 30
申 44년생 금의야행 노력의 빛이 나지 않는다. 56년생 슬기롭게 대처하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68년생 가슴이 답답한 일은 생기니 주변의 도움이 있다. 80년생 음모나 고자질하는 중인이 나타나니 마음을 굳게 싸라. 행운의 숫자: 03, 45
酉 45년생 어려운 일은 이미 발생하였다. 57년생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때이다. 69년생 세상에 응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라. 81년생 사면초가라 생각되면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행운의 숫자: 11, 34
戌 46년생 늦게까지 일을 하나 헛일이다. 58년생 부지런히 달려도 걸림이 많다. 70년생 부부사이의 오래는 집안에서 처가 만든다. 82년생 시비가 생길 일은 아예 결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01, 35
亥 47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59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솔보다는 용서의 재물을 쓰라. 71년생 마음을 굳게 싸라 시비가 격정된다. 83년생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할일이 많다. 행운의 숫자: 06, 2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서없이!!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03> 오하오우 니혼고 <903> 니하오 쥙구워 <94> 한자 이야기 <520>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시니까?
A: Do you often go fishing?
B: Well, whenever I have enough time.
A: No, this is my first time. Can you teach me how to fish?
B: Sure. Where do you live?
A: I live near here.
A: 자주 낚시를 가십니까?
B: 음~ 시간이 있을 때는 항상 가죠. 당신은요?
A: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가르쳐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B: 물론이죠. 어디에 사시죠?
A: 전 이 근처에 삽니다.
How about!?: ~ 해 주시겠습니까?
go ~ing : ~하러 가다
how to ~ :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
fish : 고기를 잡다, 낚시하다
near here : 이 근처에

掛(かけ)間違(まちが)いのようですね
잘못 건 것 같습니다
A: もしもし、成田(なりた)さんのお宅(たく)ですか。
B: いいえ、違(ちが)いますが、何番(なんばん)にお掛(か)けですか。
A: 33511103 じゃありませんか。
B: いいえ、掛(かけ)間違(まちが)いのようですね。
A: 여보세요. 나라타씨 댁입니까?
B: 아니요, 틀렸습디다만, 몇 번 건냈습니까.
A: 3351-1103 이 아닙니까.
B: 아니요, 잘못 건 것 같습니다.
お宅(たく): 댁
違(ちが)う: 다르다
掛(かけ)間違(まちが)い: 잘못걸다
~ようだ: ~인 것 같다

我快成“中国通”了
나는 머지않아 “중국에 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A: 你在中国生活几年了?
Ni zai Zhongguo shenghuo jǐ nián le?
니 짜이 쥙구워 쥙후워 지 니엔 러?
B: 我在中国生活四年了。
Wǒ zài Zhongguo shenghuo sì nián le.
워 짜이 쥙구워 쥙후워 쥙 니엔 러.
A: 你不但学习了汉语, 而且还认识了 很多中国朋友。
Ni búdàn xuéxì le hànyǔ, érqiě hái rènshì le hěnduō Zhongguó péngyou.
니 부단 쉐에시 러 한위어, 얼치에 하이 르렌시 러 호엔 두워 쥙구워 쥙어우.
B: 我快成“中国通”了。
Wǒ kuài chéng “Zhōngguó tōng” le.
워 쿠아이 칭 ‘쥙구워통’ 러.
A: 당신은 중국에서 생활한지 몇 년 됐나요?
B: 저는 중국에서 생활한지 4년 되었어요.
A: 당신은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 뿐 아니라 많은 중국 친구도 알게 되었겠네요.
B: 저는 머지않아 중국에 정통한 사람이 될 거예요.
中国通 [Zhōngguó tōng]
중국어 뿐 아니라 중국의 모든 분야에 정통한 사람
不但……而且…… [búdàn……érqiě……] ……뿐만 아니라……도

後生可畏 (후생가외)
뒤 후, 날 생, 가히 가, 두려워할 외
후생가외(後生可畏)는 뒤에 태어난 자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으로 후생(後生)은 나이가 젊고 의기(意氣)가 튼튼하므로 선생(先生)의 가르침을 배워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히 두려운다는 말이다.
이 말은 논어(論語)에서 공자(孔子)가 가장 아끼는 제자인 안회(顔回)를 평가하여 한 말이다. “젊은 후배들을 두려워해야만 한다(後生可畏). 장래에 그들이 지금의 우리를 못 따라온다고 어찌 알 수 있었는가? 그러나 40세 50세가 되어도 들려오는 명성이 없으면, 이 또한 두려울 바 없느니라.”(論語·子罕篇)
여기서 ‘외(畏)’란 ‘두려워한다’는 것 보다 ‘주목한다’는 뜻에 가깝다. ‘40세 50세의 나이가 되어도 이름이 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젊었을 때 학문에 힘을 쏟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 젊은 시절 학문에 정진할 것과, 선배 되는 사람들에게는 학문에 대하여 오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됨을 일깨우고 있다.
58세의 이퇴계(李退溪)선생이 28세의 젊은 이율곡(李栗谷)을 잠깐 만나고 ‘율곡이야말로 후생가외’라고 칭찬하였다고 하는 말은 과연 대가(大家)다운 식견이라고 생각된다.